

법무부가 콜로라도주 행정법원에 대해 언어장벽 조사 합의 도출

워싱턴 - 미국 법무부는 콜로라도 행정법원처(OAC)와 영어 능력이 부족한(LEP) 사람들이 법원에서 시기 적절하고 만족할 만한 언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OAC는 산재보상 청구는 물론 민권, 환경 정의, 교육, 교통 등 기타 중요한 분야의 청구를 심리하는 행정 법원입니다. 이 합의는 1964년 민권법 제6장에 따라 OAC에 대한 법무부의 조사를 정리합니다. 제6장에서는 OAC와 같은 연방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에 따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법무부의 심사에서는 OAC가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개인이 법정 소송에 대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자격을 갖춘 통역사 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여 OAC의 제6장 규정 준수에 대한 우려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법정 소송에서 의미있게 참여하는데 필요한 언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진정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법제도의 언어 장벽을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 나라가 약속하는 모든 국민의 사법 접근 가능성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고 민권국 법무차관보인 Pamela S. Karlan은 말했습니다. “저는 OAC의 수석 판사와 지도부가 이러한 약속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법원 이용자에게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높이 평가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콜로라도 지방 연방검사 대행인 Matt Kirsch는 “이번 합의로 인해 콜로라도 주 행정 법원에서 정의를 추구하지만 영어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콜로라도 주 행정법원처가 영어 외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콜로라도 커뮤니티에 도움이 될 합의를 법무부 및 민권국과 협력하여 마련할 기회를 인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OAC의 합의 이행의 주요 측면은 이제 OAC가 법정 소송에서 영어 능력이 부족한(LEP) 개인에게 무료로 자격을 갖춘 통역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 제21장의 개정입니다. 또한, OAC는 언어 접근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언어 지원

서비스에 대한 통지를 최소 상위 8개 언어로 제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AC는 언어 서비스 불만사항 제출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하며, 판사, 소속 직원 및 계약자를 위한 영어 능력이 부족한(LEP) 사람 문제에 대한 연례 교육을 필수로 합니다. OAC의 수석 판사와 콜로라도 법무장관청의 강력한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는 이 문제를 신속하고 협조적으로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서명한 합의의 조건에 따라 법무부는 2년 동안 OAC의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할 것입니다.

1964년 민권법 제6장의 집행은 민권국에서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민권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justice.gov/crt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어 능력이 부족한 개인 및 민권법 제6장에 대한 정보는 www.lep.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잠재적인 민권 침해 사건을 <https://civilrights.justice.gov/report/>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